십이지(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衝)·형(刑)에 관한 근원 고찰

김만태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경영학과 조교수, 명리학/민속학 전공
ware4u@dongbang.ac.kr

Ⅰ. 머리말
Ⅱ. 지지충과 원진살의 의미와 생성작용
Ⅲ. 지지형의 생성 원리와 종류
Ⅳ. 맺음말

이 논문은 천간과 지지에 관한 논자의 선행 연구들과 연작(連作) 형태를 이룬다. 그러므로 논자의 선행 논문인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십이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민족문화연구』 제54호, 2011), 「天干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天干合 연구」(『철학논집』 제30집, 2012),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철학논집』 제31집, 2012) 등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Ⅰ. 머리말

십이지(十二支), 즉 열두 지지(地支)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단순한 부호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띠면서 존재해오고 있다. 여러 문헌·유물 자료를 통해 볼 때 한반도에서는 늦어도 5세기 전반부터 십이지를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한국의 고유 문화요소는 아니지만 십이지는 날짜·방위·색상 등과 연계되어 궁합·택일·운수 등 한국 민속신앙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1)]

그러나 현실적 적용의 측면에서 볼 때 십이지는 각기 독자적으로 고립해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내포관계인 상호 대대(待對)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더욱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십이지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2)] 정작 십이지 상호 간의 작용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비로소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논의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3)]

십이지의 여러 쓰임새 중에서도 민간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해의 지지에 열두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열두 띠가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열두 띠 문화는 오래전부터 한국사회의 기층문화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남녀 간의 띠를 갖고서 궁합의 길흉을 판단하려는 풍속이

※ 이 글은 '한글(한자)' 표기가 원칙이나 독자들의 이해와 가독을 위해 오행, 십간, 십이지에 한하여 한자를 노출하여 서술하였다.

1) 김만태,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십이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54호(2011a), 259쪽 참조.

2) 가장 먼저 윤창렬의 한의학 박사학위논문인 「간지와 운기(運氣)에 관한 연구」(1987)가 있고,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명희의 「갑골문에 나타난 간지자(干支字) 연구」(1994), 윤창렬의 「십간과 십이지에 대한 고찰」(1996), 조규문의 「십간십이지의 명리적(命理的) 이해」(2002), 소재학의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2009), 김만태의 위의 논문, 김혜경의 「음양오행과 십간십이지의 원류와 연원에 대한 고찰: 고대 중국 문화집단과 신화를 통해서」(2012) 등이 있다. 그리고 열두 띠와 십이지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 손경수의 「한국을 중심한 십이지생초에 대한 소고」(1962), 이종환의 『누구나 주어진 띠 열두 동물이야기』(1989), 이찬욱의 『한국의 띠文化』(1999), 천진기의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2002), 김태완·권용채의 「갑골문에 보이는 십이지지와 열두 띠」(2010) 등이 대표적이다.

3) 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 김만태의 「天干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天干合 연구」(『철학논집』 제30집, 2012b),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철학논집』 제31집, 2012c)가 있다.

널리 전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원진살(怨嗔煞)이다.

이능화도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1927)에서 "우리 혼가 풍속에서 원진을 꺼리니 원진은 곧 성상(星相)의 흉살을 일컫는다"[4]고 하였다. 즉, 쥐띠와 양띠, 소띠와 말띠, 범띠와 닭띠, 토끼띠와 원숭이띠, 용띠와 돼지띠, 뱀띠와 개띠가 혼인하면 부부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평생 불화하며 심지어 생이별이나 사별까지 한다고 여겨 궁합에서 매우 꺼리는 풍속이 지금도 항간에 성행한다. 이 원진살이란 개념도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에 따른 쓰임새이다.

그리고 『세조실록』과 『중종실록』, 서거정(徐居正, 1422-1492)의 『동문선(東文選)』, 채수(蔡壽, 1449-1515)의 『나재집(懶齋集)』 등 여러 문헌에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운명은 없다는 논거로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옛사람이 운명에 대해 논하며 이르기를 '남양(南陽)의 귀한 선비들[5]이 어찌 모두 꼭 육합(六合)에 맞은 것이며, 장평(長平)에서 학살된 군사들[6]이 어찌 꼭 모두 삼형(三刑)에 걸린 것이겠는가?' 하였는데, 이는 확실한 논리입니다"[7]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육합과 삼형이란 말도 바로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에 따른 쓰임새를 의미한다.

육합은 음양(陰陽)의 두 지지가 서로 결합해서 이루는 子丑합, 寅亥합, 卯戌합, 辰酉합, 巳申합, 午未합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8] 육합은 개인 간 화합(和合)을 의미하므로 항간에서 궁합을 볼 때 주로 선호하는 띠가 된다. 즉, 쥐띠와 소띠, 범띠와 돼지띠, 토끼띠와 개띠, 용띠와 닭띠, 뱀띠와 원숭이띠, 말띠와 양띠는 서로 궁합이 좋다는 것이다. 형살(刑殺)이라고도 불리는 삼형은 형벌(刑罰)과 상해(傷害)의 의미로서 寅巳申형, 丑戌未형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주(四柱)에 삼형이 있거나 운수(運數)에서 삼형을 만나면 형벌 또는 상해, 불의의 사고 등 흉측한 일을 당한다고 항간에서 흔히 말한다.

---

4) 이능화 지음, 김상억 옮김, 『朝鮮女俗考』(동문선, 1990), 207쪽.

5) 중국 남양(南陽)의 제갈근(諸葛瑾)과 그 동생 제갈양(諸葛亮), 그 종제(從弟) 제갈탄(諸葛誕)이 다 함께 등용된 것을 말한다.

6) 전국시대 때 진(秦)나라와 조(趙)나라가 싸우다가 조나라의 장수 조괄(趙括)이 패하자 진나라 장수 백기(白起)가 조나라의 포로 40만 명을 장평(長平) 땅에 산 채로 묻어 죽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7) 『中宗實錄』 11년(1516) 10월 辛未. "古人論談命者以謂 '南陽貴士, 何必俱當六合. 長平坑卒, 未必共犯三刑.' 此確論也."

8) 이에 관해서는 김만태가 앞의 논문(2012b)에서 상세히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와 이를 둘러싼 길흉 관념은 오래전부터 한·중·일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속신앙과 술수문화에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동양의 전통적 사유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많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과 형, 원진살과 형살도 바로 그런 요소들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정통학문으로 여기지 않는 술수에 관한 사항이고, 그 논의 또한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자연히 민속신앙과 술수문화의 연구영역도 편협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부터라도 극복하기 위해 원진살의 발단이 되는 충, 그리고 형살이라고도 불리는 형의 의미와 그것들이 생성되는 원리와 작용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국 민속신앙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술수문화를 읽는 데 필수 부호인 십이지와 그것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학술적 이해의 지평을 보다 근본적으로 넓혀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지지충과 원진살의 의미와 생성작용

1. 지지충에 함축된 의미

충(衝·沖)[9]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고, 金과 木, 水와 火처럼 방위상 서로 대립하며 기질이 상반되는 오행끼리 정면으로 충돌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이다. 합(合)하고 화(化)하는 것은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이 만나서 만물을 낳는 부부(夫婦)의 도(道)와 같아서 일음일양의 배합(一陰一陽之配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충은 편음(偏陰)·편양(偏陽)으로 구성되어 음양이 부조화(不調和)된다. 즉, 충은 양끼리 만나거나 음끼리 만나서 음양이 부조화되는 데다가 기질이 상반되는 오행인 木과 金, 火와 水가 각기 동(東)과 서(西), 남(南)과 북(北)의 방위에서 정면 대치(對峙)하는 것으로서, 180° 서로 마주 보며 정면충돌하여 상극보다

9) 근래에 와서는 衝자 대신에 沖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변화를 초래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충을 할 때는 합과 달리 오행의 변화는 생기지 않으나 기세의 변화는 있다고 한다.

상극(相剋)이 상생(相生)의 상대 개념이라면, 충은 합의 상대 개념으로서, 상극보다 더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합과 충은 이를 구성하는 간지(干支)들이 서로 화합하거나 충돌하여 그것들의 특성이나 작용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합은 유정(有情)한 평화지상(平和之像)으로 안정과 조화를 위해 화합하고 단결하며, 서로 결합하여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거나 보다 강력한 집단·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충은 무정(無情)한 전극지상(戰剋之像)으로 서로 정면충돌해서 충격·파괴·손상·투쟁·불화·분리·해체·이동·발동·계기·분발·촉발·진격·가속·혁신·개척·창조·전화위복 등의 적극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합이 전적으로 긍정적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충도 부정적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10]

편음이나 편양으로 방위상 180° 서로 마주 보며 위치하여 정면으로 충돌하는 변화작용 관계인 충은 천간과 지지의 충으로 구분된다. 천간은 甲과 庚, 乙과 辛, 丙과 壬, 丁과 癸가 상충(相衝)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11] 戊와 己가 충이 없는 것은 戊己의 土는 방위상 중앙에 위치하여 서로 대치하는 것이 없고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戊甲, 己乙, 庚丙, 辛丁, 壬戊, 癸己는 두 천간의 음양이 서로 같아 부조화되고 오행도 상극되지만 이 경우는 충이라 하지 않고 극하는 관계로 본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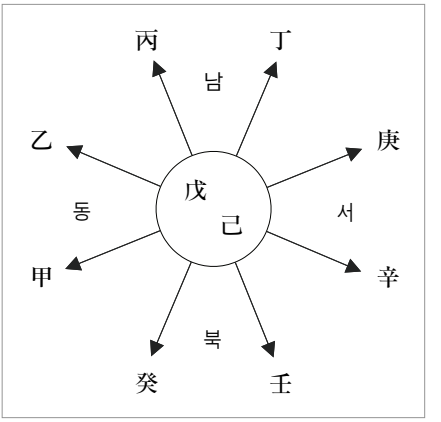

그림1-천간충의 구성도

10) 『三命通會』(2) 論衝擊. "여러 시결(詩訣)을 살펴보니 충파(衝破)를 만나면 길함도 있고 흉함도 있으므로 (하나만 보고서 모두 똑같이) 대강 논해서는 안 된다(觀諸詩, 見衝破有吉有凶, 不可概論)."

11) 흔히 천간에는 방위 개념이 없으므로 방위상 180° 마주 보는 위치에서 정면충돌하는 충의 개념도 천간에는 없다고 잘못 말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방위 술수학인 풍수지리학 등에서 사용하는 24방위에 甲, 乙, 丙, 丁, 庚, 辛, 壬, 癸 등이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천간에도 방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표1-천간지지의 음양오행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음양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천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지지	寅	卯	巳	午	辰戌	丑未	申	酉	亥	子

연하면, 戊와 甲, 己와 乙은 중앙과 동, 丙과 庚, 丁과 辛은 남과 서, 壬과 戊, 癸와 己는 북과 중앙에 각기 위치하고 있어 방위상 서로 대치하지 않기 때문에 충으로 보지 않고 극하는 관계로 논한다.

천간에서 甲과 庚, 乙과 辛, 壬과 丙, 癸와 丁이 서로 충하는데 이는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서로 대치하기 때문이다. 丙과 庚, 丁과 辛이 서로 볼 때는 극하는 관계로서 논하지 충하는 관계로서는 논하지 않는데 이는 남과 서에 위치하여 서로 대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戊와 己가 충이 없는 것은 중앙에 위치하여 서로 대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12]

지지의 충도 천간의 충과 마찬가지로 양끼리 만나거나 음끼리 만나서 음양이 부조화되는 데다가 기질이 상반되는 오행인 木과 金, 火와 水가 각기 동과 서, 남과 북의 방위에서 정면 대치하는 것[13]으로서, 180° 서로 마주 보며 정면충돌하여 상극보다 더욱 큰 변화를 초래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지충은 寅卯辰 동방목국(東方木局)과 申酉戌 서방금국(西方金局) 간, 巳午未 남방화국(南方火局)과 亥子丑 북방수국(北方水局) 간의 상충이다. 개별적으로는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가 상충한다.

자연의 시간적 흐름을 인간 삶의 준거로 삼고자 했던 시령적(時令的) 사유와 관련하여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에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지지 상충을 육합(六合)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래 육합의 개념은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처음 등장하는데[14] 여기서 육합은 동서

12) 陳素庵 지음, 韋千里 선집, 『命理約言』(香港: 上海印書館, 1987), 69쪽, 干衝論. "天干甲庚相衝, 乙辛相衝, 壬丙相衝, 癸丁相衝, 蓋東與西, 南與北相對也. 丙庚丁辛相見以剋論, 不以衝論, 蓋南與西不相對也. 戊己無衝, 蓋居中無對也."

13) 袁樹珊, 『命理探原』(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57쪽, 六衝. "按六衝者, 卽地位相敵, 五行相剋之義."

남북 사방에 상하가 더해진, 즉 천지를 통합한 입체적 공간 개념이었다. 『회남자』「지형훈(墜形訓)」에서도 육합을 천지사방 · 세상 · 우주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15] 그러나 『회남자』「시직훈」에서는 시령적 사유에 근거한 여섯 가지 짝의 개념으로 육합을 사용하면서 여섯 가지 지지충을 열거하였다. 여기서 합(짝)을 이룬다는 것은 합이 되는 2개의 달 사이에 상호 밀접한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서, 가령 1월에 정치를 잘못하면 6개월 후인 7월에 마땅히 불어야 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16] 이는 뒤에서 논의할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육충화기론(六沖化氣論)과도 연관이 된다.

육합: 맹춘(孟春-寅)과 맹추(孟秋-申)가 합이 되고, 중춘(仲春-卯)과 중추(中秋-酉)가 합이 되고, 계춘(季春-辰)과 계추(季秋-戌)가 합이 된다. 맹하(孟夏-巳)와 맹동(孟冬-亥)이 합이 되고, 중하(仲夏-午)와 중동(仲冬-子)이 합이 되고, 계하(季夏-未)와 계동(季冬-丑)이 합이 된다.[17]

지지도 천간과 마찬가지로 순서상 7번째 닿는 지지와 충이 된다. 그러므로 지지충도 칠충(七沖)이다. 다만 천간과 달리 앞으로나 뒤로나 모두 7번째이다. 가령 천간 甲은 庚과 충이 되는데, 천간 순서상 앞(順)으로 7번째 가면 庚에 닿고, 뒤(逆)로는 5번째 가면 庚에 닿는다. 뒤로 7번째 가면 戊에 닿는데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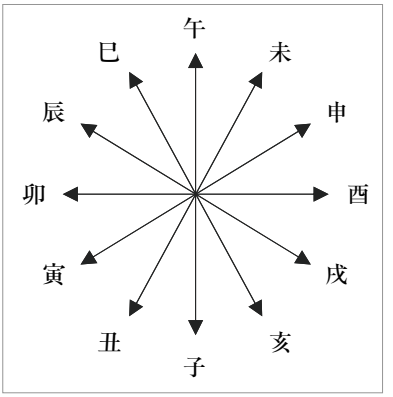

그림2-지지충의 구성도

14) 『莊子』 齊物論. "성인들은 우주 밖에 있는 것에 대해 그대로 두고서 논의하지 않는다. 성인들은 세상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논의는 하지만 분간하지 않는다(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 六合之內, 聖人論而不議)."; 오강남, 『장자』(현암사, 2003), 105쪽.

15) 『淮南子』 (4) 墜形訓. "대지가 싣고 있는 곳, 육합 사이, 사극 안에는 일월에 의해 비춰지고, 성신의 운행에 따라 다스려지며, 사시의 순환에 의해 정돈되고, 태세의 추이에 따라 바로잡혀지고 있다(墜之所載, 六合之閒, 四極之內, 照之以日月, 經之以星辰, 紀之以四時, 要之以太歲)."; 유안 편저, 안길환 편역, 『淮南子 (上)』(명문당, 2001), 183쪽.

16) 이석명, 「회남자의 時令사상과 음양오행론」, 『대동문화연구』 제70집(2010), 154쪽.

17) 『淮南子』 (5) 時則訓. "六合: 孟春與孟秋爲合, 仲春與仲秋爲合, 季春與季秋爲合. 孟夏與孟冬爲合, 仲夏與仲冬爲合, 季夏與季冬爲合."

충이 아니고 무정한 극으로서 칠살이 된다. 그러나 지지는 순역(順逆) 모두 7번째 닿는 같은 지지와 충이 된다.

지지는 7번째 자리를 취하면 충이 되는데 천간이 7번째 자리를 취하여 살(煞)이 되는 의의와 같다. 가령 子午는 서로 충이 되는데 子에서 午까지 수(數)가 7이고, 甲이 庚을 만나면 살이 되는데 甲에서 庚까지 수가 7이다. 수 가운데서 6은 합이 되고, 7은 지나친 것이라 서로 충격하면 살이 된다. 역(易)을 관찰해보니 곤원(坤元)은 6을 사용한다. 그 수에 6은 있으나 7은 없다. 7은 곧 천지가 다한 수이고, 음양이 극에 달한 기[18]이다.[19]

지지도 음과 양이 만나면 합이 되고, 양과 양이 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면 충이 되는 기본 이치는 천간과 같다. 다만 천간과 달리 지지는 水火상충과 金木상충뿐 아니라 같은 오행인 土끼리도 충을 한다. 즉, 子午와 巳亥는 수화가 상충하는 것이고, 卯酉와 寅申은 금목이 상충하는 것이라면, 辰戌과 丑未는 사계(四季)와 사우(四隅)에 각각 속하면서 土끼리 충하는 것이다. 토충(土沖)은 정면으로 충돌은 하였으나 기질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붕충(朋沖)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약한 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 토행(土行)충의 존재가 천간충과 구별되는 지지충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지지충의 생성작용에 관한 논의

지지충은 각 지지에 소장(所藏)된 천간들 상호 간에 충극을 하는 것이다.[20] 즉, 지장간(支藏干)[21]에서 서로 충극하는 것이어서 충극의 변화작용이 다양하고, 지지는 천간의 통근처(通根處)로서 천간에도 충극의 영향을 미치며, 주위 세력의 여하에 따라서도 충극의 변화작용이 크게 달라진다.

---

18) 주역 復괘사의 '反復其道, 七日來復, 天行也', 震괘 六二 효사의 '勿逐, 七日得'도 이런 의미이다.

19) 『三命通會』(2) 論衝擊. "地支取七位爲衝, 猶天干取七位爲煞之義. 如子午對衝, 子至午七數, 甲逢庚爲煞, 甲至庚七數. 數中六則合, 七則過, 故相衝擊爲煞也. 觀易坤元用六. 其數有六無七. 七乃天地之窮數, 陰陽之極氣也."

20) 陳素庵 지음, 韋千里 선집, 앞의 책, 71쪽, 支衝論. "十二支子午相衝, 丑未相衝之類, 各支中所藏互相剋衝."

21) 지지에 들어 있는 여러 천간을 말한다. 지장간이 월지에 있는 경우를 월률분야(月律分野)라 하고, 그 외의 지지에서는 인원용사(人元用事)라 한다. 학설에 따라 지장간의 월률분야와 인원용사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지지가 충을 할 때는 합과 달리 오행의 변화는 생기지 않으나 기세의 변화는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지지충의 작용에 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子午충은 子중의 癸水가 午중의 丁火를 극하고, 午중의 己土가 子중의 癸水를 극하는 것이다. 丑未충은 丑중의 辛金이 未중의 乙木을 극하고, 未중의 己土와 丁火가 丑중의 癸水와 辛金을 극하는 것이다.[22] 寅申충은 寅중의 甲木이 申중의 戊土를 극하고, 申중의 庚金과 壬水가 寅중의 甲木과 丙火를 극하는 것이다. 卯酉충은 酉중의 辛金이 卯중의 乙木을 극하는 것이다. 경에서 "東이 西를 충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卯木이 酉金을 도리어 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辰戌충은 辰중의 癸水가 戌중의 丁火를 극하고, 戌중의 辛金이 辰중의 乙木을 극하는 것이다. 巳亥충은 巳중의 庚金이 亥중의 甲木을 극하고, 亥중의 壬水가 巳중의 丙火를 극하는 것이다.[23]

방위 배열상 십이지는 서로 떨어져 둘씩 마주 보고 대칭하는데 이렇게 180° 서로 마주 보는 두 지지의 기는 섞여서 하나의 기로 변화되어 나온다. 이를 육충화기(六沖化氣), 즉 육기(六氣)라 한다.[24] 육기는 천지의 음양 소장(消長)과 오행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다. 오행과 육기는 같은 것으로, 하늘에서는 무형의 육기가 되고 땅에서는 유형의 오행이 된다. 육기는 하늘에 있는 무형의 氣이다 보니 사람들이 감각할(느낄) 수는 있으나 쉽게 관찰할(볼) 수는 없다. 다만 육기의 작용과 육기가 드러내는 현상은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알) 수 있다.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삼음삼양(三陰三陽)이라 했고, 풍(風)·열(熱: 君火)·화(火: 相火)·습(濕)·조(燥)·한(寒)[25]의 육기와 연관시켰다.[26]

---

22) 이에 대해 丑未충은 丑중의 癸水와 辛金이 未중의 丁火와 乙木을 극하고, 未중의 己土가 丑중의 癸水를 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나름 타당하다고 본다.

23) 袁樹珊, 앞의 책, 57-58쪽, 六衝. "子午相衝者, 子藏癸水, 剋午藏丁火, 午藏己土, 剋子藏癸水也. 丑未相衝者, 丑藏辛金, 剋未藏乙木, 未藏己土, 丁火, 剋丑藏癸水, 辛金也. 寅申相衝者, 寅藏甲木, 剋申藏戊土, 申藏庚金, 壬水, 剋寅藏甲木, 丙火也. 卯酉相衝者, 酉藏辛金, 剋卯藏乙木也. 經云: 東衝西不動, 殆卽卯木不能返衝酉金之義. 辰戌相衝者, 辰藏癸水, 剋戌藏丁火, 戌藏辛金, 剋辰藏乙木也. 巳亥相衝者, 巳藏庚金, 剋亥藏甲木, 亥藏壬水, 剋巳藏丙火也."

24) 鍾義明 지음, 韓中敎育文化硏究院 편역, 『四柱와 韓醫學』(여강출판사, 1995), 91-94쪽 참조.

25) 이러한 육기의 배열 순서는 오행의 상생 순서에 따른 것으로 일찍이 『황제내경소문』 육미지대론(六微旨大論)에 서술되어 있다. 『黃帝內經素問』 卷19, 六微旨大論. "顯明(日出之位)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

표2-십이지의 육충화기(六沖化氣)

一陰[궐음]		二陰[소음]		三陰[태음]		一陽[소양]		二陽[양명]		三陽[태양]	
風木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	
亥	巳	午	子	丑	未	寅	申	酉	卯	戌	辰

一陰[궐음] → 二陰[소음] → 三陰[태음] → 一陽[소양] → 二陽[양명] → 三陽[태양]의 순으로 木火土金水 오행의 상생 순서대로 배합하면 궐음-풍목(風木), 소음-군화(君火), 태음-습토(濕土), 소양-상화(相火), 양명-조금(燥金), 태양-한수(寒水)가 된다.[27] 육기는 상대적이고 대칭하는 두 지지의 기가 하나의 기로 합해지는 것(六沖化氣)이므로 이를 십이지에 각기 배합하면 표2와 같다.[28]

정면으로 서로 마주 보는 巳亥는 합해서 풍기(風氣)가 되고, 子午는 합해서 열기(熱氣), 丑未는 합해서 습기(濕氣), 寅申은 합해서 화기(火氣), 卯酉는 합해서 조기(燥氣), 辰戌은 합해서 한기(寒氣)가 된다. 그러므로 십이지의 육충화기는 십이지와 삼음(궐음-소음-태음)·삼양(소양-양명-태양)에 육기[풍·군화(열)·상화(화)·습·조·한]를 배합하고 이를 다시 오행과 결합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림3-십이지의 육충화기도

음양이 조화되지 않고, 金과 木, 水와 火처럼 방위상 서로 대립하며 기질이 상반되는 오행끼리 정면으로 충돌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만 충으로 논하는 지금의 설과 달리 『오행대의(五行大義)』[29]는 자신의 7번째 천간

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

26) 權依經·李民聽 편저, 김은하·권영규 공역, 『오운육기학 해설』(법인문화사, 2000), 83-85쪽 참조.

27) 『黃帝內經素問』(19) 天元紀大論.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

28) 『黃帝內經素問』(19) 五運行大論. "子午之上, 少陰主之; 丑未之上, 太陰主之; 寅申之上, 少陽主之; 卯酉之上, 陽明主之; 辰戌之上, 太陽主之; 巳亥之上, 厥陰主之. 不合陰陽, 其故何也."

29) 수(隋)나라 초기 음양과 산술(算術)에 정통한 소길(蕭吉)이 24편으로 분류해서 정리한 음양오행서이다.

이나 지지와 상극하는 칠살(七殺)을 모두 충파(衝破)라고 하였다. 따라서 戊와 甲, 己와 乙, 庚과 丙, 辛과 丁, 壬과 戊, 癸와 己도 칠살로서 충파가 된다.

표3-계절 기운에 의한 지지 구분

구분		춘	하	추	동
생지	맹	寅	巳	申	亥
왕지	중	卯	午	酉	子
고지	계	辰	未	戌	丑

그리고 충파를 논하면서 서로 부딪치고 대립하는 기운의 경중(輕重)에 따라 가벼운 것은 충하는 기운이 되고, 무거운 것은 파하는 기운이 된다고 보았다.[30] 예컨대 甲木이 庚金에게로 가는 것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제재하므로) 충이 되고, 庚金이 甲木에게로 가는 것은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제재하므로) 파가 되는 것이다.[31]

또한 계절이 순환되는 의미를 갖는 지지는 맹중계(孟仲季), 즉 생지(生支)·왕지(旺支)·고지(庫支)로 구분해서 4맹월(생지)은 생(生)만 있고 사(死)는 없으니 충만 있고 파는 없으며, 4중월(왕지)은 생과 사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충과 파가 모두 있으며, 4계월(고지)은 생은 없고 사만 있으니 충은 없고 파만 있다고 하였다.[32]

명대 초 유기(劉基, 1311-1375)[33]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명리서(命理書)인 『적천수(滴天髓)』에서는 충에 관하여 어느 문헌에서보다도 탁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양지(陽支)는 성정이 동적이면서도 강하기 때문에 길흉의 징험이 항상 빠르고, 음지(陰支)는 성정이 정적이면서도 약하기 때문에 화복의 응험이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34]

---

30) 『五行大義』 (2) 論衝. "衝破者, 以其氣相格對也. 衝氣爲輕, 破氣爲重. 支干各自相對, 故各有衝破者."

31) 『五行大義』 (2) 論衝. "又復甲往向庚爲衝, 庚往向甲爲破, 以强者制弱也."

32) 『五行大義』 (2) 論衝. "其輕重, 皆以死生言之. 四孟有生而無死, 直衝而不破. 四季有死而無生, 直破而無衝, 四仲死生俱興, 故竝有衝破."

33) 원말 명초의 浙江省 靑田 사람이며 자는 伯溫이고, 시호는 文成이다. 명나라의 개국공신으로 經史에 능통했고 아울러 術數에도 정통했다고 한다. 훗날 明太祖가 된 朱元璋이 그의 명성을 듣고 예를 갖추어 초빙하자 〈時務十八策〉을 개진해서 천하를 차지하는 계책을 올림으로써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우는 데 공훈을 세웠다. 명 태조 원년에 御史中丞兼太史令이 되었고 1370년(명 洪武 3년)에 誠意伯에 봉해졌다가, 다음해에 사직하였다. 뒤에 胡惟庸에게 참소를 당해 죽었다. 그는 당시에 詩文으로서도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로 『郁離子』·『覆瓿集』·『寫情集』·『春秋明經』·『犁眉公集』·『誠意伯文集』 등이 있다.

34) 劉伯溫 지음,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滴天髓闡微』(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38쪽, 地支. "陽支性動而强, 吉凶之驗恒速, 陰支性靜而弱, 禍福之應較遲."

만약 사주가 왕하여 유여(有餘)한 자는 충거(沖去)하여야 하고, 쇠약하여 부족한 자는 회조(會助)하여야 아름답게 된다. 이런 경우 사주에 충극(沖剋)이나 회합(會合)하는 신이 없다면 세운에서 암래(暗來)하여 충극이나 회합하면 더욱 기쁠 것이다.[35]

사고(四庫: 辰戌丑未)의 충도 역시 마땅한 바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바도 있다. 살펴보건대 3월(辰)의 乙木과 6월(未)의 丁火는 비록 퇴기(退氣)이지만 만약 (乙木과 丁火가) 사령하였다면 용신(用神)이 될 수도 있는데 충이 되어 손상을 받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묘고(墓庫)는 충을 만나야 발휘된다는 것은 후세 사람들의 잘못이다.[36]

戊土가 寅에 자리하면 申을 두려워하고, 申에 자리하면 寅을 두려워한다. 대개 충하면 뿌리가 흔들리는데 이는 지도(地道)의 바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정(安靜)되어야 마땅하다.[37]

寅申巳亥는 生方이니 충동되는 것을 꺼리고, 辰戌丑未는 四庫이므로 충이 되어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38]

그러나 辰戌丑未 사고지(四庫支)의 경우 충이 되면 그 안에 저장된 지전삼물(地全三物), 즉 지장간(支藏干)이 손상되므로 사고지는 충이 되어야 발달한다는 속설은 오류라고 했다가 또 한편에서는 사고지는 창고(倉庫)이므로 충으로 창고 문이 열려야 비로소 그 안에 저장된 것들을 꺼내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충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적천수』에서의 이런 모순된 관점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사주명리가들 사이에서 辰戌丑未 사고지의 경우 충이 되어야만 과연 그 안에 저장된 지장간 — 특히 중기(中氣) — 을 꺼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다. 즉, '辰戌丑未四墓庫逢沖則發開' 여부의 논란을 일으킨 단초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건륭 41년(1776) 청나라의 심효첨(沈孝瞻)이 저술하고, 1936년 중화민국의 서락오(徐樂吾)가 평주한 사주명리서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 심효첨은 "속설에서는 창고를 열려면 반드시 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속된 책에서 말하는 오류일 뿐이다"[39]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락오

35) 위의 책, 46쪽, 地支. "若旺而有餘者, 沖去之, 衰而不足者, 會助之爲美. 如四柱無沖會之神, 得歲運暗來沖會尤爲喜也."

36) 위의 책, 42-43쪽, 地支. "至於四庫之沖, 亦有宜不宜. […] 按三月之乙, 六月之丁, 雖屬退氣, 若得司令, 竟可爲用, 沖則受傷, 不足用矣. 所謂墓庫逢沖則發者, 後人之謬也."

37) 위의 책, 1쪽, 天干. "戊土 […] 坐寅怕申, 坐申怕寅. 蓋沖則根動, 非地道之正也. 故宜靜."

38) 위의 책, 38쪽, 地支. "寅申巳亥生方也, 忌沖動, 辰戌丑未四庫也, 宜沖則開."

39) 沈孝瞻 지음, 徐樂吾 평주, 『子平眞詮評註』(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46쪽, 十二月令人元司令分野表. "時說謂投庫而必沖者, 俗書之謬也."

도 주(注)에서 “고지(庫支)를 만나면 반드시 충해야 된다는 말은 오류가 매우 심하다. 예컨대 辰은 동방목(東方木)의 지지로서 만약 청명 후 12일 이내라면 乙木이 사령하여 여기(餘氣)인 을목이 여전히 왕성하므로 어찌 고(庫)를 충해야 된다고 말하겠는가? 土는 본기이므로 고라고 할 바가 없고, 金(水木)火는 고 안에 들어 있든 없든 간에 충이 되는 것이 어찌 이롭겠는가?”[40]라고 하여 辰戌丑未 사고지의 경우 충이 되어야 개고(開庫)가 된다는 속설은 오류이며, 또한 다른 지지와 마찬가지로 충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3. 원진살의 의미와 생성작용

민간에서는 남녀 간의 생년(띠) 화오행(花五行)[41]이 상생하고, 가취멸문법(嫁娶滅門法)[42]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로가 원진살이 되면 혼인에 불길하다고[43] 여길 만큼 원진살은 항간에서 남녀의 궁합으로 매우 기피하는 지지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무당들이 일상에서 언급하는 21개의 살(煞) 가운데도 원진살은 주요하게 포함된다.[44]

원진(怨嗔・元嗔・元辰)은 충(沖)하는 지지의 전후(前後) 바로 다음 지지이다. 양지(陽支)는 충한 후 순행(順行)하여 바로 다음에 만나는 관계가 원진이고, 음지(陰支)는 충한 후 역행(逆行)하여 바로 다음에 만나는 관계가 원진이다. 따라서 원진은 충하고 나서 만나는 것이므로 싸움을 하고 나서 그 앙금으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子는 양(陽)이므로 午를 충하고 나서 순행하여 未를 곧바로 만나므로 子未가 원진이다. 丑은 음(陰)이므로 未를 충하고 나서 역행하여 午를

---

40) 위의 책, 47쪽, 十二月令人元司令分野表. “逢庫必沖之說, 謬誤可嗤. 如辰本爲東方木地, 若在淸明後十二日內, 乙木司令, 餘氣猶旺, 何云投庫. 土爲本氣, 無所謂庫, 金火則庫中無有, 沖亦何益.”

41) 육십화갑자(六十花甲子), 납음오행(納音五行)이라고도 한다.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의 다섯 음(音)에 각기 수(數)와 오행(五行)을 붙이고(納) 그것으로써 육십갑자의 오행을 매긴 것이다.

42) 가취멸문에 해당하는 남녀끼리 혼인하면 혼인 후 재산이 소멸되고 자손이 끊어진다고 한다. 正月生女－九月生男, 二月生女－八月生男, 三月生女－五月生男, 四月生女－十月生男, 五月生女－正月生男, 六月生女－十二月生男, 七月生女－三月生男, 八月生女－十月生男, 九月生女－四月生男, 十月生女－十一月生男, 十一月生女－二月生男, 十二月生女－七月生男. 조성우・한중수, 『易學大辭典』(명문당, 1994), 207쪽 참조.

43) 김혁제・한중수, 『唐四柱要覽』(명문당, 1991), 175-179쪽 참조.

44) 이필영,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1)』(국립민속박물관, 2009), 391쪽, ‘살(煞)’ 항목.

곧바로 만나므로 丑午가 원진이다. 寅은 양이므로 申을 충하고 나서 순행하여 酉를 곧바로 만나므로 寅酉가 원진이다. 卯는 음이므로 酉를 충하고 나서 역행하여 申을 곧바로 만나므로 卯申이 원진이다. 辰은 양이므로 戌을 충하고 나서 순행하여 亥를 곧바로 만나므로 辰亥가 원진이다. 巳는 음이므로 亥를 충하고 나서 역행하여 戌을 곧바로 만나므로 巳戌이 원진이다.

표4-지지의 충과 원진, 삼합지(三合支)

음양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我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충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원진	未	午	酉	申	亥	戌	丑	子	卯	寅	巳	辰
삼합지	申	巳	戌	未	子	酉	寅	亥	辰	丑	午	卯
삼합	申子辰 / 寅午戌 / 巳酉丑 / 亥卯未											

또한 지지 배열상 원진은 나(我支)와 충(沖)이 되는 지지와 삼합(三合)이 되는 지지의 사이에 위치한다. 충은 충돌을, 삼합은 화합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원진은 충돌과 화합 사이에서 번뇌하고 갈등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는 남녀 간의 궁합에서 대개 충은 기피되고 삼합은 선호된다. 그래서 원진은 함께 있으면 미워지고(충) 헤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삼합) 이중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진의 작용은 애증(愛憎)의 교차(交叉)로 나타난다. 육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증오하여 서로를 적대시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불화 · 반목 · 갈등 · 별거 · 이별 · 이혼 · 고독 등을 나타내지만 정작 헤어지면 다시 또 그리워져 보고 싶어 하는 극단적인 감정의 이중 구조를 보여준다. 명(命)에 원진이 있거나 운(運)에서 원진을 만나는 해에는 인덕이 없고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며 육친 간에도 무정해지고 정신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현재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진살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45]

서기양두각(鼠忌羊頭角): 쥐(子)는 양(未)이 뿔난 것을 미워한다(子－未).
우진마불경(牛嗔馬不耕): 소(丑)는 말(午)이 밭 갈지 않고 노는 것을 노여워한다(丑－午).
호혐계취단(虎嫌鷄嘴短): 호랑이(寅)는 닭(酉)의 부리가 짧은 것을 싫어한다(寅－酉).
토한후불평(兎恨猴不平): 토끼(卯)는 원숭이(申)의 허리가 굽은 것을 원망한다(卯－申).
용증저면흑(龍憎猪面黑): 용(辰)은 돼지(亥)의 얼굴이 검은 것을 미워한다(辰－亥).
사경견폐성(蛇驚犬吠聲): 뱀(巳)은 개(戌)의 짖는 소리에 놀란다(巳－戌).

『삼명통회(三命通會)』[46]에 따르면 원진이란 헤어져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양전음후(陽前陰後)면 굽히는 바가 있어서 굽히는, 즉 일이 펴지지 않고, 음전양후(陰前陽後)면 곧이곧대로 하고 순응하지 않아서 일이 거칠고 다스려지지 않아 함께 같은 일을 도모함이 어려운 것을 원진이라 한다. 그러므로 양남음녀(陽男陰女)면 충하는 지지 앞 한 자리가 원진이고, 음남양녀(陰男陽女)면 충하는 지지 뒤 한 자리가 원진이다. 가령 甲子生 남자이면 甲午와 대충(對衝)이므로 乙未가 원진이 되고, 乙丑生 남자이면 乙未와 충이 되므로 甲午가 원진이 된다. 나머지 천간의 午未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 원진이 흉이 되는 까닭은 마땅한 氣를 지지에서 충하기 때문[47]이라고 한다.

항간에서 단식 판단법으로 남녀 궁합을 볼 때 최악의 흉살(凶殺)로 여기는 원진살은 띠, 즉 생년지(生年支)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생년지보다는 생일 지지, 즉 일지(日支)의 원진이 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시(日時)에 원진이 있으면 부부간은 물론 자식과의 불화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주명리에서는 일(日)은 나 자신과 배우자에 해당하고, 시(時)는 자식과 후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48]

---

45)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 연구』(민속원, 2011b), 401쪽.
46) 16세기 중반 명대(明代) 만민영(萬民英)이 집성하고 찬술한 12권의 사주명리서이다.
47) 『三命通會』(3) 論元辰. "元辰者, 別而不合之名. 陽前陰後, 則有所屈, 屈則於事無所伸, 陰前陽後, 則直而不邃, 於事暴而不治, 難與同事, 故謂之元辰. 是以陽男陰女, 在衝前一位支辰, 陰男陽女, 在衝後一位支辰. 假如甲子生男, 與甲午對衝, 即乙未爲正, 乙丑生男, 與乙未對衝, 即甲午爲正. 餘干午未半之. 所以爲凶者, 當氣衝之地."
48) 전통적으로 사주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시의 간지(干支)인 사주(四柱)를 나무(樹)의 구성체인 근묘화실(根苗花實)에 비유한다. 그래서 연주(年柱)는 근(根)으로서 나무의 뿌리에 비유되며 가문과 조상에 해당한다. 월주(月柱)는 묘(苗)로서 나무의 지엽에 비유되며 부모 형제에 해당한다. 일주(日柱)는 화(花)로서 나무의 꽃에 비유되며 나

Ⅲ. 지지형의 생성 원리와 종류

1. 지지형의 의미와 생성 원리

우리 민속에서 지지의 형은 형살(刑殺)로서 지세지형(持勢之刑)을 말하는데, 이는 곧 자기 세력을 과신하여 오만을 부리면 결국에는 외롭게 갇히게 된다는 뜻이다. 즉, 집안의 개도 너무 날뛰면 결국 개 목줄에 묶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본다.[49]

『오행대의』에 의하면 형(刑)은 죽이고 벌하는 것(殺罰)을 말한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서 옳지 못한 것을 형벌(刑罰)하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형벌하는 것이다. 오행이 각각 한 방위에 있어 추위와 더위가 옮겨감에 따라 사시에 응하여 같이 움직이니 그 절도를 잃지 않고 각자 침범하지 않기에 형벌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그 운행이 엄격하지 않으면 다스려야 하므로 서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금으로써 금을 다스리면 그릇을 이루고, 사람으로써 사람을 다스리면 나라의 정치를 이루는 것[50]과 같은 의미이다.

꾸짖음과 회초리(怒笞), 형벌 등에 관해서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이르기를 "가정에서 부모의 꾸짖음과 회초리가 없다면 아이들의 나쁜 짓은 곧 눈에 띄게 생겨난다. 국가에서 형벌이 없다면 백성들이 서로 침범하는 일이 곧 눈에 띄게 생겨난다. 천하에 주벌(誅伐)하는 군사가 없다면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는 일이 곧 눈에 띄게 생겨난다. 그러므로 꾸짖는 일과 회초리는 가정교육에 없어서는 안 되고, 형벌은 국가정치에 없어서는 안 되고, 주벌은 천하경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지 그것들을 잘 운용하느냐 못하느냐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들도 정의로운 군대를 두었으되 군대를 폐지하는 일은 없었다"[51]고

자신과 배우자에 해당한다. 시주(時柱)는 실(實)로서 나무의 열매에 비유되며 자식과 후손에 해당한다고 인식한다.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258쪽.

49) 김재일,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 2』(한림미디어, 1997), 38쪽 참조.

50) 『五行大義』 (2) 論刑. "夫刑者, 殺罰爲名. 自是刑於不義, 非故相刑也. 五行各在一方, 寒暑推移, 應時而動, 不失其節, 各不犯, 各無應獨受刑者. 但須用之不嚴而治, 不可棄而不用, 故皆還相刑. 如以金治金, 則成其器, 以人治人, 則成國政."

51) 『呂氏春秋』 (7) 孟秋紀 「蕩兵」. "家無怒笞, 則豎子嬰兒之有過也立見. 國無刑罰, 則百姓之悟相侵也立見. 天下無誅伐, 則諸侯之相暴也立見. 故怒笞不可偃於家, 刑罰不可偃

하였다.

즉, 형(刑)이란 형벌 · 형살(刑殺)과 같은 뜻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범이나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민속신앙을 비롯한 술수학에서 형은 형사사건에 의한 형벌 또는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사건 · 사고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命)에 형살이 있어도 사주 오행(五行)이 순조롭고 격국(格局)이 뚜렷하고 귀인(貴人)이 있다면 오히려 형살이나 의술(醫術)을 시행하는 귀한 명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형을 만나면 좋지 않지만 또 형을 만나야만 자극을 받아 일이 성취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행대의』는 "모든 복서(卜筮)의 쓰임이 형을 만나면 좋지 않으나, 구하는 일은 형이 아니면 얻지 못한다"[52]고 하였다. 대체로 형을 본다고 해서 곧 흉하다고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모름지기 오행 중에 길신 · 왕상 · 관성 · 인수 · 귀신(貴神) · 복덕 등의 유무를 보아서 여러 길성이 상부상조하면 형도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용(用)이 된다. 만일 여러 길성의 상조가 없고 오히려 망신 · 겁살 · 천중살 · 양인 등 흉살을 갖고 있으면 악으로써 악을 돕는 것이니 그 화(禍)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53]이다.

『삼명통회』는 『음부경(陰符經)』의 말을 인용하여 "삼형(三刑)은 삼합에서 생기는 뜻이 있고, 합한 가운데 형이 생기는 것으로서 부부가 서로 합하여도 도리어 형상(刑傷)에 이르는 것과 같으니, 조화와 인사의 이치는 모두 하나로 같을 뿐이다"[54]라고 하였다.

지지형이 구성되는 원리는 먼저 지지 삼합과 방합(方合)의 교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지 삼합이 서로 생조(生助)하는 지지 방합과 만나면 그 기세가 지나치게 강왕(强旺)해지므로 오히려 형살이 작용한다는 뜻에서 지지의 형이 비롯되었다. 즉, 모든 사물은 너무 강하면 오히려 꺾이기가 쉽고(太剛則折), 가득 차면 반드시 덜어지고(滿則招損), 정도가 지나침은 도리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는 자연의 이치에서 지지형이

於國, 誅伐不可偃於天下. 有巧有拙而已矣. 故古之聖王有義兵, 而無有偃兵."

52) 『五行大義』 (2) 論刑. "凡卜筮所用, 遇刑非善, 然所求之事, 非刑不獲."

53) 『三命通會』 (2) 論三刑. "凡見刑, 不可便以凶論. 須看五行中, 有無吉辰, 旺相, 官星, 印綬, 貴神, 德福等物, 有此諸吉, 相扶相助, 刑不爲害而反爲用. 如無諸吉相助, 更帶亡劫, 天中, 羊刃等煞, 以惡濟惡, 禍不可言."

54) 『三命通會』 (2) 論三刑. "陰符經曰: 恩生於害, 害生於恩, 三刑生於三合, 亦如六害生於六合之義. […] 合中生刑, 猶人夫婦相合, 而反致刑傷. 造化人事, 其理一而已矣."

표5-지지의 삼합과 방합, 형의 생성관계

삼합	申子辰	水局	寅午戌	火局	巳酉丑	金局	亥卯未	木局
방합	寅卯辰	木局 (동)	巳午未	火局 (남)	申酉戌	金局 (서)	亥子丑	水局 (북)
형	申 子 辰 ㅣ ㅣ ㅣ 寅 卯 辰		寅 午 戌 ㅣ ㅣ ㅣ 巳 午 未		巳 酉 丑 ㅣ ㅣ ㅣ 申 酉 戌		亥 卯 未 ㅣ ㅣ ㅣ 亥 子 丑	

생겨나는 것이다.[55]

가령, 申子辰 水局이 寅卯辰 동방 木을 만나면, 왕한 木이 더욱 왕강해지므로 중화(中和)를 잃어버려서 申은 寅을 형하고, 子는 卯를 형하고, 辰은 辰 자신을 형하는 것이다. 寅午戌 火局이 巳午未 남방 火를 만나면, 왕한 火가 더욱 왕강해지므로 중화를 잃어버려서 寅은 巳를 형하고, 午는 午 자신을 형하고, 戌은 未를 형하는 것이다. 巳酉丑 金局이 申酉戌 서방 金을 만나면, 왕한 金이 더욱 왕강해지므로 중화를 잃어버려서 巳는 申을 형하고, 酉는 酉 자신을 형하고, 丑은 戌을 형하는 것이다. 亥卯未 木局이 亥子丑 북방 水를 만나면, 왕한 木이 더욱 왕강해지므로 중화를 잃어버려서 亥는 亥 자신을 형하고, 卯는 子를 형하고, 未는 丑을 형하는 것이다.[56]

즉, 삼합하는 오행이 방합의 자리로 돌아가면 더욱 강왕해져서 그 절도를 잃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지지형의 생성 원리를 『오행대의』와 『삼명통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나무(잎)는 떨어져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亥卯未 목의 자리는 형이 북방(水)에 있으니 亥는 자신을 형하고, 卯의 형은 子에 있고, 未의 형은 丑에 있다.
>
> 물은 흘러 끝으로 향해 간다. 그러므로 申子辰 수의 자리는 형이 동방(木)에 있으니 申의 형은 寅에 있고, 子의 형은 卯에 있고, 辰은 자신을 형한다.
>
> 쇠도 단단하고 불도 강하여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巳酉丑 금의 자리는 형이 서방(金)에 있으니 巳의 형은 申에 있고, 酉는 자신을 형하고,

---

55) 최근에는 지지형의 구성 원리에 대해 '삼합과 방합이 만나 세력을 다투어 나타나는 현상, 즉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사회지향적인 삼합과 동기간의 결합으로 공동체적인 방합이 기세(氣勢)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이론도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56) 『三命通會』(2) 論三刑. "如申子辰三合, 加寅卯辰三位, 則申刑寅, 子刑卯, 辰見辰自刑. 寅午戌加巳午未, 則寅刑巳, 午見午自刑, 戌刑未. 巳酉丑加申酉戌, 則巳刑申, 酉見酉自刑, 丑刑戌. 亥卯未加亥子丑, 則亥見亥自刑, 卯刑子, 未刑丑."

丑의 형은 戌에 있다.

寅午戌 화의 자리는 형이 남방(火)에 있으니 寅의 형은 巳에 있고, 午는 자신을 형하고, 戌의 형은 未에 있다.[57]

즉, 쇠는 단단하고 불은 강하므로(金剛火强) 스스로 자신의 방위를 형하는 것이다(巳酉丑—申酉戌, 寅午戌—巳午未). 나무는 시들면 근본(水)으로 돌아가는데 겨울이 오면 초목이 떨어져서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亥卯未—亥子丑). 물은 흘러 동쪽(木)으로 가는데 흘러 가버리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다(申子辰—寅卯辰). 그리하여 지지형이 생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삼합과 방합의 교제가 아니라 가득 찬 숫자인 10(十)으로 삼형이 구성되는 원리를 『삼명통회』에서는 말하기도 한다. 너무 강강하면 오히려 꺾어지고(太剛則折), 가득 차면 반드시 엎어진다는(盈滿則覆) 자연의 이치에 따라 기운이 넘치면 오히려 절도와 중화를 잃고서 형이 된다는 논리를 견지한다는 점에서는 앞 두 원리 모두 결국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삼형의 법은 數로써도 성립한다. 황극중천에서 10은 살수(煞數)가 되는데 數가 쌓여서 10이 되면 그 수는 모두 (다시) 비어진다. 왜냐하면 천도는 가득 차는 것을 꺼려해서 뒤집기(다시 비우기) 때문이다. 수를 卯에서 子까지 앞으로 세어가고, 子에서 卯까지 거꾸로 세어가면 10수의 극에 다다라서 무례지형(無禮之刑)이 된다. 寅에서 巳까지 거꾸로 세어가고, 巳에서 申까지 거꾸로 세어가면 10수의 극에 다다라서 무은지형(無恩之刑)이 된다. 丑에서 戌까지 앞으로 세어가고, 戌에서 未까지 앞으로 세어가면 10수의 극에 다다라서 시세지형(恃勢之刑)이 된다. 7이면 충이 되고, 10이면 형이 되고, 6이면 합이 되는 것은 자연의 한 이치이다.[58]

또 항간에서는 사흑십악(四惑十惡)으로 지지형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흑(四惑)은 앞으로 4번째인 순행사위(順行四位)이고, 십악(十惡)은 거꾸

57) 『五行大義』(2) 論刑. "木落歸本. 故亥卯未木之位, 刑在北方, 亥自刑, 卯刑在子, 未刑在丑. 水流向末. 故申子辰水之位, 刑在東方, 申刑在寅, 子刑在卯, 辰自刑. 金剛火强. 各還其鄉, 故巳酉丑金之位, 刑在西方, 巳刑在申, 酉自刑, 丑刑在戌. 寅午戌火之位, 刑在南方, 寅刑在巳, 午自刑, 戌刑在未."

58) 『三命通會』(2) 論三刑. "三刑之法, 以數起之. 皇極中天, 十爲煞數, 積數至十, 則悉空其數, 天道惡盈滿則覆. 故數自卯順至子, 子逆至卯, 極十數而爲無禮之刑. 寅逆至巳, 巳逆至申, 極十數而爲無恩之刑. 丑順至戌, 戌順至未, 極十數而爲恃勢之刑. 七則衝, 十則刑, 六則合, 一理之自然也."

로 10번째인 역행십위(逆行十位)이다. 즉, 寅에서 巳까지 순행사위이자 역행십위가 되므로 寅은 巳를 형한다. 巳에서 申까지 순행사위이자 역행십위가 되므로 巳는 申을 형한다. 未에서 戌까지 순행사위이자 역행십위가 되므로 未는 戌을 형한다. 戌에서 丑까지 순행사위이자 역행십위가 되므로 戌은 丑을 형한다. 子에서 卯까지 순행사위이자 역행십위가 되므로 子와 卯는 형한다. 그리고 寅과 申, 丑과 未의 관계는 순행사위, 역행십위의 수가 되지 못하므로 형이 될 수 없다고[59] 말한다.

청나라 진소암(陳素庵)은 1660년경 저술한 『명리약언(命理約言)』에서 이런 연유로 지지형이 생성된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비판하였다.

일찍이 그 이치를 자세히 연구해보니 목국(木局)에 수방(水方)을 더하거나, 수국(水局)에 목방(木方)을 더하면 이는 상생이 되는데 어찌 서로 형이 될 수 있겠는가? 옛 학설에 이르기를 "나무(잎)는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고, 물은 흘러 동쪽으로 달려간다"고 했는데, 뿌리로 돌아가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이치와 기세가 순리에 따른 것이니 더욱 형에 해당할 수가 없다. 또 화국(火局)에 화방(火方)을 더하고 금국(金局)에 금방(金方)을 더하는 것은 모두 본기(本氣)이니 어찌 서로 형이 되겠는가? 옛 학설에 이르기를 "쇠가 굳세고 불이 강하면 그 방소를 스스로 형한다"고 했는데, 태강(太剛)하고 과강(過强)하면 이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기(氣)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辰午酉亥는 본지(本支)가 본지를 형하는 것이므로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60]

나아가 진소암은 『명리약언』에서 寅申巳亥 생지(生支)끼리 서로 형하는 경우, 子午卯酉 왕지(旺支)끼리 서로 형하는 경우, 辰戌丑未 묘지(墓支)끼리 서로 형하는 경우를 지칭하여 삼형(三刑)이라 하는 것이 생왕묘(生旺墓) 삼자가 각기 문호를 세우고 서로 투기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이치에 더 합당하다고 말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은 합에서 유래한 것인 즉, 子刑卯, 卯刑午, 午刑酉, 酉刑子하는데 이는 왕신(旺神)이 서로 형하는 것이다. 寅刑巳, 巳刑申, 申刑亥, 亥刑寅하는데 이는 생신(生神)이

59) 신육천, 『사주감정법비결집』(갑을당, 2002), 68-69쪽.

60) 陳素庵 지음, 韋千里 선집, 앞의 책, 73쪽, 支刑論. "嘗考究其理, 木局加水方, 水局加木方, 是爲相生, 何以相刑. 舊說曰: 木落歸根, 水流趨東也. 夫歸根趨東, 是則理勢甚順, 更不當刑矣. 火局加火方, 金局加金方, 皆本氣, 何以相刑. 舊說曰: 金剛火强, 自刑其方也. 夫太剛過强, 是必害己之物, 乃絶不傷他氣也. 且辰午酉亥, 本支卽刑本支, 尤不近理."

표6-『명리약언』의 지지 삼형

지지 삼형	내용
寅申巳亥 生神상형	寅刑巳, 巳刑申, 申刑亥, 亥刑寅
子午卯酉 旺神상형	子刑卯, 卯刑午, 午刑酉, 酉刑子
辰戌丑未 墓神상형	丑刑辰, 辰刑未, 未刑戌, 戌刑丑

서로 형하는 것이다. 丑刑辰, 辰刑未, 未刑戌, 戌刑丑하는데 이는 묘신(墓神)이 서로 형하는 것이다. 이들을 지칭하여 삼형이라 하는데 대개 생왕묘(生旺墓) 3자가 각기 문호를 세우고 서로 투기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그 논하는 바가 비교적 이치가 있다. 그러나 아직 감히 상례(常例)로 갑자기 정하지는 못하겠다.[61]

지지형과 앞서 살펴본 지지충의 원리를 서역(西域)에서 유래한 점성학(astrology)의 개념으로써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다.[62] 앞의 그림2 지지충의 구성도에서 보듯이 지지충의 관계는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룬다. 새로운 견해의 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점성학에서의 대립(代立, opposition)으로, 지지형은 사각(四角, square)이라고 해석하는데 깊은 논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점성학은 지구 중심적 우주관에서 초자연적 힘을 지닌 하늘의 별들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 관념의 산물이다. 점성학에서 해와 달, 오행성 등 행성(planet)[63]들은 독자적인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특별한 관계를 갖고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인식된다. 그중에서도 두 행성이 180°로 벌어져 있는 대립은 천궁도(天宮圖, chart)에서 서로 정면으로 대응하는 관계로서 두 행성이 서로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성위(星位, aspect)이다. 사각은 두 행성의 간격이 90°가 되는 성위이며 대립에서 변형된 것이다.[64]

대립이 갈등을 야기한다면 사각은 장해와 불화를 초래한다. 대립

61) 위의 책, 73쪽, 支刑論. "嘗見一老學訂正云: 刑由合來刑, 則子刑卯, 卯刑午, 午刑酉, 酉刑子, 是爲旺神相刑也. 寅刑巳, 巳刑申, 申刑亥, 亥刑寅, 是爲生神相刑. 丑刑辰, 辰刑未, 未刑戌, 戌刑丑, 是爲墓神相刑. 名曰三刑, 蓋生旺墓三者, 各立門戶而相爲姤害也, 其論較有理. 然未敢遽定爲例."

62) 이용준,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2쪽.

63)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며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항성(恒星, stella)이지만 지구 중심적 우주관에 입각한 점성술에서는 떠돌이별인 행성(行星, planet)으로 본다.

64) Tamsyn Barton, *Ancient Astrology*(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pp. 98-102, p. 113.

은 최소한의 유대감은 있으나 사각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이다. 사각을 이루는 두 행성에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다. 그래서 대립이 같은 목표 아래서 경쟁하는 관계라면 사각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상대를 방해하는 관계이다.[65] 그러므로 사각과 달리 대립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동양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와 서역 점성학 간의 상관성 연구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지지형의 종류에 관한 논의

지지형은 크게 네 종류로, 寅巳申 삼형(三刑), 丑戌未 삼형, 子卯 상형(相刑), 辰午酉亥 자형(自刑)이 있다. 寅巳申 삼형은 寅이 巳를 형하고, 巳가 申을 형하고, 申이 寅을 형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형하는 것과 같으므로 무은지형(無恩之刑)이라 하고, 丑戌未 삼형은 丑이 戌을 형하고, 戌이 未를 형하고, 未가 丑을 형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세력을 믿고 형하는 것과 같으므로 시세지형(恃勢之刑), 子卯 상형은 子가 卯를 형하고, 卯가 子를 형하는 것으로 상하 간에 예의 없이 형하는 것과 같으므로 무례지형(無禮之刑), 辰午酉亥 자형은 辰이 辰을 만나고, 午가 午를 만나고, 酉가 酉를 만나고, 亥가 亥를 만나서 스스로 형하는 것이므로 자형지형(自刑之刑)이라 한다. 이는 『삼명통회(三命通會)』에 수록된 내용이다.[66]

그러나 『삼거일람(三車一覽)』·『연해자평(淵海子平)』[67]에서는 이와 다

표7-지지형의 종류

지지형	『삼명통회』	『연해자평』	기타
寅巳申 삼형	無恩之刑	恃勢之刑	恃勢之刑
丑戌未 삼형	恃勢之刑	無恩之刑	無禮之刑
子卯 상형	無禮之刑	無禮之刑	無恩之刑
辰午酉亥 자형	自刑之刑	自刑之刑	自刑之刑

65) 유기천, 『인간의 점성학 (Ⅰ)』(정신세계사, 2002), 130-136쪽 참조.

66) 『三命通會』(2) 論三刑. "故數自卯順至子, 子逆至卯, 極十數而爲無禮之刑. 寅逆至巳, 巳逆至申, 極十數而爲無恩之刑. 丑順至戌, 戌順至未, 極十數而爲恃勢之刑. […] 辰午酉亥, 是以此四位謂之自刑."

67) 남송 말 서대승(徐大升)이 저술한 『연해(淵海)』와 후대 학자들의 문집인 『연원(淵源)』에 1634년 명의 당금지(唐錦池)가 「구결(口訣)」을 더해서 편찬한 사주명리서이다.

르게 寅巳申을 시세지형, 丑戌未를 무은지형이라고 한다.[68] 즉, 寅巳申은 각 오행의 장생이나 임관(건록)이 되는데 그 세력을 믿고 서로 형벌하므로 시세지형이고, 丑戌未는 모두 土에 속하는데 비화(比和)하는 형제간에 서로 형벌하므로 무은지형이라고 한다.[69] 그 외 寅巳申을 지세지형, 丑戌未를 무례지형, 子卯를 무은지형으로 하는 논리도 있다.

寅巳申을 무은지형(無恩之形)이라고 하는 까닭은 寅중에 甲木이 있어 巳중 戊土를 형벌하기 때문이다. 戊土는 癸水를 합하여 처로 삼는데 癸水는 甲木의 어머니이다. 따라서 戊土는 癸水의 남편이자 甲木의 아버지이다. 내가 아버지를 형벌하는 것이므로 은혜를 잊은 것이다. 巳중 丙火가 申중의 庚金을 형벌하고, 申중의 庚金이 寅중 甲木을 형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70] 그러므로 무은지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巳와 申은 음양이 서로 화합하는 지지 육합이면서 동시에 서로 제재하는 형이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오행대의』는 巳와 申이 지지합이 되면서 또한 지지형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金은 水를 띠고 있으면서 火 속에서 생겨나는데 火는 金의 귀신(鬼神)이 되고, 水는 火의 귀신이 된다. 金이 水를 함께 지니면서 火 속에서 생겨나니 이것은 귀신과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있는 것이다. 申은 金의 자리이면서 水를 머금고, 巳는 火의 자리이면서 金을 낳지만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형이 되는 것이다.[71] 즉, 결국 申중의 水가 도리어 申을 낳은 어머니인 巳火를 극하는 귀신이 되므로 巳와 申은 형이 되는 것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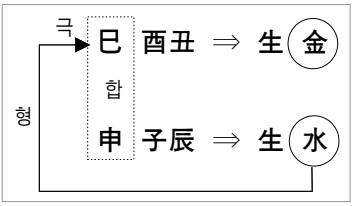

그림4-巳申 형과 합의 관계

丑戌未를 시세지형(恃勢之刑)이라고 하는 까닭은 未중에 왕토(旺土)가

68) 徐升, 『淵海子平評註』(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24쪽, 論十二支相刑. "寅刑巳, 巳刑申, 申刑寅(爲恃勢之刑). 丑刑戌, 戌刑未, 未刑丑(爲無恩之刑). 子刑卯, 卯刑子(爲無禮之刑). 辰午酉亥, 自刑之刑."

69) 『三命通會』(2) 論三刑. "三車一覽, 以寅巳申爲恃勢, 以三宮中各有長生臨官之勢, 丑戌未爲無恩, 以三位皆屬土, 比和爲兄弟, 其說亦通."

70) 『三命通會』(2) 論三刑. "然寅巳申, 何以謂之無恩. 蓋寅中有甲木, 刑巳中戊土. 戊以癸水相合爲妻, 則癸水者甲木之母也. 戊土旣爲癸水之夫, 乃甲之父也. 彼父而我刑之, 恩斯忘矣. 巳中之丙, 刑申中之庚, 申中之庚, 刑寅中之甲, 准此同義."

71) 『五行大義』(2) 論刑. "六合是吉, 而巳申相剋者何. 答曰: 金帶水生火中, 火爲金鬼, 水爲火鬼. 金共水生火中, 則是鬼母子身. 申是金位, 兼復懷水, 巳是火位, 復有生金, 還相讎, 故以爲刑也.

있는데 자신의 세력을 믿고서 丑중의 왕수(旺水)를 형벌하고, 또 未가 丁火의 세력을 믿고서 丑중의 辛金을 형벌하고, 丑이 旺水의 세력을 믿고서 戌중의 丁火를 형벌하고, 戌은 辛金의 세력을 믿고서 未중의 乙木을 형벌하기 때문이다.[72]

子卯를 무례지형(無禮之刑)이라고 하는 까닭은 子는 水이고 卯는 木으로서 水가 木을 생하므로 子는 어미가 되고 卯는 자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자가 서로 형벌하기 때문이다. 또한 卯는 태양이 뜨는 동쪽 문이고 子는 陽이 생겨나는 곳[一陽始生]인데 태양은 (子가 아니라) 卯에서 뜨므로 子卯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맞서며, 자신을 삼가고 낮추는 도가 없이 상생할 바도 근심하지 않으며 번갈아 서로 형벌하고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73]

辰午酉亥, 즉 辰辰, 午午, 酉酉, 亥亥를 자형(自刑)이라고 하는 까닭은 辰은 水의 묘지로서 가득 차면 넘치고, 午는 火의 왕지로서 맹렬하면 불살라 버리고, 酉는 金이라서 단단하면 깨뜨러지고, 亥는 木의 생지로서 왕성하면 썩게 되는데 (이들이 거듭될 경우) 이미 성하고 태과한 기를 갖고 있어서 스스로 화(禍)를 부르기 때문에 자화자초(自禍自招)의 의미로서 자형이라 하는 것이다.[74]

그러나 진소암은 1660년경 『명리약언』을 저술하면서 "무례지형, 시세지형, 무은지형의 내용을 일일이 자세하게 풀어보면 지엽적인 것이 더욱 번잡하고 타당하지 않으므로 고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75]면서 이렇게 지지형의 종류를 구분해서 각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1840년대 후반 임철초(任鐵樵)는 『적천수』를 증주(增註)하면서 이르기를, 辰辰, 午午, 酉酉, 亥亥는 동기(同氣)간이고, 子卯는 상생(相生)간이고,

---

72) 『三命通會』(2) 論三刑. "丑戌未, 何以謂之恃勢. […] 未有旺土, 復恃勢刑丑中之旺水. 又云: 未恃丁火之勢, 以刑丑中之金. 丑恃旺水之勢, 以刑戌中之火. 戌恃辛金之勢, 以刑未中之木. 故曰恃勢."

73) 『三命通會』(2) 論三刑. "子卯, 何以謂之無禮. 子屬水, 卯屬木, 水能生木, 則子水爲母, 卯木爲子, 子母自相刑. 又卯爲日門, 子爲陽之所生, 日出於卯, 子卯角立. 無欽卑之道, 不恤所以相生, 遞相刑害, 故曰無禮."

74) 『三命通會』(2) 論三刑. "辰午酉亥, 何以謂之自刑. […] 又云: 辰者水之墓, 滔則盈. 午者火之旺, 暴則焚. 酉者金之位, 剛則缺. 亥者木之生, 旺則朽. 各禀已盛太過之氣, 而自致禍, 故曰自刑."

75) 陳素庵 지음, 韋千里 선집, 앞의 책, 73쪽, 支刑論. "若無禮之刑, 恃勢之刑, 無恩之刑, 一一曲爲詮解, 更使支雜無當, 宜極闢之."

丑戌未는 모두 본기(本氣)이고, 寅巳도 상생간이고, 寅申은 이미 충이므로 이들을 다시 형(刑)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子卯를 일형(一刑), 寅巳申을 이형(二刑), 丑戌未를 삼형(三刑)이라 하여 통틀어 삼형이라 하는데, 또 자형까지 있는 것은 모두가 속서(俗書)에서 잘못된 것[76]이라고 하였다.

진소암과 임철초의 견해는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생극제화(生剋制化)에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서, 여타의 논리에 의한 이론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종래의 신살(神殺)과 납음오행(納音五行) 등에 의한 간명(看命)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간지와 오행의 생극제화 정리(正理)를 근간으로 간명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과 원진살, 형과 형살의 길흉작용이 판가름 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음양오행과 한난조습(寒暖燥濕)의 중화(中和) 여부이다.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과 원진살, 형과 형살의 쓰임이 가장 빈번한 사주명리를 예로 들어보자. 사주명리는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천간지지로 치환한 후,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를 통해서 그 상호 관계를 해석하여 사람 명운의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추론체계이다.[77] 그리고 사주는 대저울(杆秤)에 비유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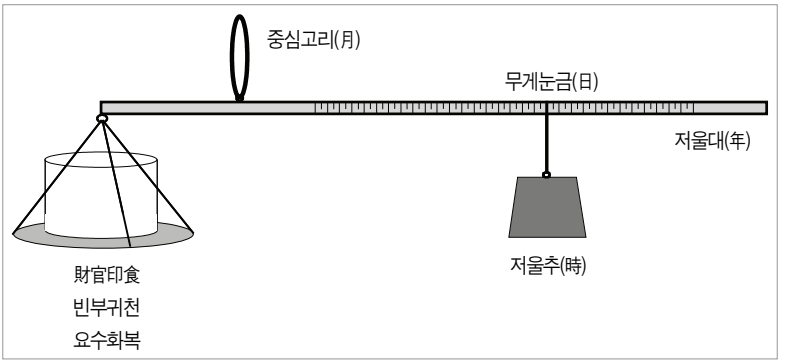

그림5-사주와 대저울, 그리고 중화와 평형
(출처: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2011, 292쪽).

76) 劉伯溫 지음,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 앞의 책, 43쪽, 地支. "刑之義無所取, 如亥刑亥, 辰刑辰, 酉刑酉, 午刑午, 謂之自刑, 本支見本支, 自謂同氣, 何以相刑. 子刑卯, 卯刑子, 是謂相生, 何以相刑. 戌刑未, 未刑丑, 皆爲本氣, 更不當刑. 寅刑巳, 亦是相生, 寅申相刑, 旣冲何必再刑. 又曰子卯一刑也, 寅巳申二刑也, 丑戌未三刑也, 故稱三刑, 又有自刑, 此皆俗謬, 姑置之."

77) 김만태, 앞의 책(2011), 292쪽.

있는데, 연은 저울대(鉤), 월은 중심점(提綱), 일은 눈금(銖兩), 시는 저울추(權)가 된다.[78]

궁극적으로 사주명리는 생년월일시의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 대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인 평형(平衡)상태를 지향하며, 이는 사주 안에서 간지의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인 중화(中和)를 의미한다.[79] 그러므로 중화지기(中和之氣)는 사주명리론의 가장 요체가 된다.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變淵源)』[80]에서도 중화지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 음양은 좀처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한 가지 예로써 추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름지기 중화지기의 득실을 살펴서 귀천을 분별하도록 힘써야 한다.[81]

> 모쪼록 사람의 명은 중화의 기를 얻어야 귀한데 태과와 불급은 모두 불가하다. 그러므로 태과와 불급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화지기는 복을 두텁게 하고 편당하여 극하면 재앙이 된다.[82]

사주가 중화지기를 이룰 경우 빈천(貧賤)과 요화(夭禍)의 재앙을 벗어나 마침내 부귀창성하고 무병장수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주를 구성하는 간지의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이 중화에 근접하면 지지의 충과 원진살, 형과 형살의 작용도 흉함이 감소하고 오히려 길함이 많아지며, 태과(太過)·편고(偏枯)하면 더욱 흉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과 형, 이에 따른 원진살과 형살이 결과적으로 길과 흉 중 어느 쪽으로 더 작용하느냐는 것은 충과 형의 작용 자체와 더불어 사주 전체의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의 중화지기 달성 여부에도 달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78) 『三命通會』(7) 子平說辯. "人生八字, 爲先天之氣, 譬則秤也. 其年爲鉤, 時爲權, 月爲提綱, 日爲銖兩."

79) 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제28집(2012a), 287-288쪽 참조.

80) 三命術을 전수받아 南宋 말에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진 徐大升이 1253년에 지은 2권의 四柱命理書이다. 서문과 발문이 붙어 있어 저술 시기와 저술자가 명확하다. 조선시대 陰陽科 命課學 전공자들의 本業書이자 명과학의 試取과목으로도 활용되었다.

81) 『子平三命通變淵源』(上) 喜忌篇. "是以陰陽罕測, 不可一例而推, 務要稟得中和之氣, 神分貴賤."

82) 『子平三命通變淵源』(上) 正官. "蓋人之命, 貴得中和之氣, 太過與不及皆不可, 故曰太過與不及同. 中和之氣爲福厚, 偏黨之剋爲災殃."

Ⅳ. 맺음말

십이지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는 각 지지가 서로 결합·충돌·제재·파괴·방해 작용을 하는 합(合)·충(衝)·형(刑)·파(破)·해(害)가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합·충·형이 특히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지지의 합과의 연계성 속에서 원진살(怨嗔煞)의 발단이 되는 충, 그리고 형살(刑殺)이라고도 불리는 형의 의미와 그것들이 생성되는 원리와 작용 등에 대해 근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충과 형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살펴보았는데 그 기본적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열두 지지는 각기 혼자 고립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대대(待對)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력을 수수하며 작용하고, 그리하여 다양한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에서도 지지 충과 원진, 형은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는 관계들이다. 지지 합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들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지가 충과 형을 할 때는 합과 달리 오행의 변화는 생기지 않으나 기세의 변화는 있다.

지지의 합과 충은 이를 구성하는 지지들이 서로 화합하거나 충돌하여 그것들의 특성이나 작용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회남자』「시칙훈」에서는 자연의 시간적 흐름을 인간 삶의 준거로 삼고자 하는 시령적 사유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지지 상충을 육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황제내경』의 육충화기론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충(沖)은 방위상 180° 서로 마주 보며 위치하여 정면으로 충돌하는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는 순역(順逆) 모두 7번째 닿는 같은 지지와 충이 된다. 음과 양이 만나면 합이 되고, 양과 양이 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면 충이 되는 기본 이치가 담겨 있다. 지지의 충은 각 지지에 소장된 천간들 상호 간에 충극을 하는 것이므로 충의 변화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지는 천간의 통근처(通根處)로서 천간에도 충극의 영향을 미치며, 주위 세력의 여하에 따라서도 충극의 변화작용이 크게 달라진다.

辰戌丑未 사고지(四庫支)의 경우 충이 되어야만 과연 그 안에 저장된 지장간(支藏干) — 특히 중기(中氣) — 을 꺼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아직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적천수』에서는 상호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효첨과 서락오는 고지(庫支)를 만나서 창고를 열려면 반드시 충해야 된다는 개고설(開庫說)은 오류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지와 마찬가지로 辰戌丑未도 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술수학계에서는 辰戌丑未 사고지는 창고(倉庫)이므로 충으로 창고 문이 열려야 비로소 그 안에 저장된 것들을 꺼내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충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관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남녀 간의 궁합을 보거나 운수를 판단할 때 매우 많이 쓰이는 원진(怨嗔)은 지지가 서로 충한 후 바로 다음에 만나는 관계이다. 그래서 원진은 서로 충돌·싸움하고 나서 곧바로 만나는 것이므로 그 앙금이 많이 남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 배열상 원진은 나(我支)와 충이 되는 지지와 삼합이 되는 지지 사이에 위치하므로 애증(愛憎)의 교차, 즉 함께 있으면 미워지고(충) 헤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삼합) 이중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형(刑)은 죽이고 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命)이나 운(運)에서 형을 만나면 대체로 좋지 않지만, 또한 형을 만나야만 자극을 받아 일이 성취되기도 한다. 지지 삼합이 서로 생조(生助)하는 지지 방합과 만나면 그 기세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절도와 중화를 잃어버리므로 — 너무 강하면 꺾이고(太剛則折) 가득 차면 비워지는 것(盈滿則覆)이 자연의 이치이므로 — 오히려 형살(刑殺)이 작용한다는 뜻에서 지지의 형이 생겨난다. 하지만 청대(淸代)의 진소암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지지형의 종류를 구분해서 각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과 형, 이에 따른 원진살과 형살의 작용이 결과적으로 길함과 흉함 중 어느 쪽으로 더욱 발현되느냐 하는 결정 문제는 충과 형 자체에도 달렸지만 사주를 구성하는 선천지기(先天之氣) 전체의 균형과 중화 달성 여부에도 달린 사항이라고 추론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십이지 자체에 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이지 상호 간의 작용관계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한국 민속신앙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와 술수학을 읽는 데 필수 부호인 십이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보다 넓혀나가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민속신앙과 술수문화에 대한 연구가 보다 근본적 · 심층적으로 진행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懶齋集』, 『東文選』, 『三命通會』, 『世祖實錄』, 『呂氏春秋』, 『五行大義』, 『莊子』, 『中宗實錄』, 『黃帝內經素問』, 『淮南子』.

權依經 · 李民聽 편저, 김은하 · 권영규 공역, 『오운육기학 해설』. 법인문화사, 2000.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 · 십이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5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a, 259-302쪽.

_____,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2011b.

_____,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제2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a, 266-293쪽.

_____,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 『철학논집』 제31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b, 205-241쪽.

_____, 「天干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天干合 연구」. 『철학논집』 제30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c, 97-128쪽.

김재일,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 2』. 한림미디어, 1997.

김태완 · 권용채, 「갑골문에 보이는 십이지지와 열두 띠」. 『동북아문화연구』 제2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459-478쪽.

김혁제 · 한중수, 『唐四柱要覽』. 명문당, 1991.

김혜경, 「음양오행과 십간십이지의 원류와 연원에 대한 고찰: 고대 중국 문화집단과 신화를 통해서」. 『일본문화연구』 제4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135-157쪽.

소재학,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손경수, 「한국을 중심한 십이지생초에 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2.

신육천, 『사주감정법비결집』. 갑을당, 2002.

오강남, 『장자』. 현암사, 2003.

유기천, 『인간의 점성학 (Ⅰ)』. 정신세계사, 2002.

유안 편저, 안길환 편역, 『淮南子 (上)』. 명문당, 2001.

윤창렬, 「간지와 운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_____, 「십간과 십이지에 대한 고찰」. 『한의학 논문집』 제4권 제2호,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6, 1-19쪽.

이능화 지음, 김상억 옮김, 『朝鮮女俗考』. 동문선, 1990.

이명희, 「갑골문에 나타난 간지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석명, 「회남자의 時令사상과 음양오행론」. 『대동문화연구』 제70집, 성균관대학

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133-159쪽.
이용준,「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종환,『누구나 주어진 띠 열두 동물이야기』. 신양사, 1989.
이찬욱,『한국의 띠文化』. 황금시대, 1999.
이필영,『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9, '살(煞)' 항목.
조규문,「십간십이지의 명리적 이해」.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성우·한중수,『易學大辭典』. 명문당, 1994.
鍾義明 지음, 韓中敎育文化硏究院 편역,『四柱와 韓醫學』. 여강출판사, 1995.
천진기,「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徐升,『淵海子平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沈孝瞻 지음, 徐樂吾 평주,『子平眞詮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袁樹珊,『命理探原』.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劉伯溫 지음, 任鐵樵 증주, 袁樹珊 찬집,『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陳素庵 지음, 韋千里 선집,『命理約言』. 香港: 上海印書館, 1987.

Tamsyn Barton, *Ancient Astrolog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국 문 요 약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와 이를 둘러싼 길흉 관념은 오래전부터 한·중·일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 사유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민속신앙과 술수문화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십이지는 각기 독자적으로 고립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대대(待對)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그 일환으로 지지의 충(衝)·형(刑)·원진(怨嗔) 등이 있다.

지지의 합(合)과 충은 이를 구성하는 지지(地支)들이 서로 화합하거나 충돌하여 그것들의 특성이나 작용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에서는 시령적(時令的) 사유와 관련하여 지지 상충(相衝)을 육합(六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육충화기론(六沖化氣論)과도 연관된다.

충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고, 金과 木, 水와 火처럼 방위상 서로 대립하며 기질이 상반되는 오행끼리 정면으로 충돌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이다. 辰戌丑未 사고지(四庫支)의 경우 충이 되어야만 과연 그 안에 저장된 천간(天干)을 꺼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아직 정설이 없으나 『적천수(滴天髓)』에서 상호 모순된 견해를 제시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다.

원진(怨嗔)은 충하는 지지의 전후(前後) 바로 다음 지지이다. 그래서 원진은 서로 싸우고 나서 곧바로 만나는 것이므로 그 앙금이 많이 남아 서로 원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원진은 나(我支)와 충이 되는 지지와 삼합(三合)이 되는 지지 사이에 위치하기에 충돌과 화합 사이에서 갈등하는 의미도 갖는다.

형살(刑殺)을 의미하는 형(刑)은 지지 삼합이 서로 생조(生助)하는 지지 방합(方合)과 만나 그 기세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오히려 꺾이는 게(太剛則折) 자연의 이치라는 뜻에서 생긴다. 스스로 기운이 너무 넘치면 오히려 절도와 중화를 잃고서 형이 되므로 자화자초(自禍自招)의 의미를 나타낸다.

투고일 2013. 6. 20.
심사일 2013. 7. 29.
게재 확정일 2013. 8. 5.
주제어(keyword) 지지(地支, Jiji), 십이지(十二支, 12 Earth's Branches), 삼형(三刑, Samhyeong), 원진살(怨嗔煞, Wonjinsal), 사주(四柱, Saju), 명리학(命理學, the Science of Ming-Li)